

농업전선에서의 결사전은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전당, 전국, 정론

정론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자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조국땅 북변의 핵무삼천리법령부터 동해안의 함흥방, 남해도 열두번을 뛰어간다는 시베리안 열무삼천리법령과 동해안, 드넓은 연백벌과 재명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일전투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야이다 신념의 불은가들이 세차게 걸리니 당 제 7차대회 결정판의 열도는 기세로 내지는 뜨겁게 달아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국제태권도련맹 주요성원들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6일 민주주의당에서 의예방문하여온 비용선생



위대성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속에 뛰두산전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최선시정적사업을 힘있게 진행해나가고자 하고있다.
 위대성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속에 뛰두산전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최선시정적사업을 힘있게 진행해나가고자 하고있다.
 위대성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속에 뛰두산전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최선시정적사업을 힘있게 진행해나가고자 하고있다.

반미투쟁의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고귀한 한성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 선생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총성의 200일전투를 폭풍처럼 내달리는 현안민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는 벽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 탄생 188돌을 맞이하고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위대한 내 조국의 지레찬 승들이 긍지로울수록 우리의 가슴속에는 반미투쟁의 첫 승리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진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을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강기사의 《서연》로 격침기념비일에 서있다.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사를 전하여주는 이 기념비일에 서고보니 후대에는 애국의 피가 끓어오른다.
 미제침략선 《서연》로 격침기념비, 정령 그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기적이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이 나라 현안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승리의 기둥, 북부의 기둥이 아닐까.
 기념비의 글줄을 읽어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불같은 애국심을 지니우고 반미투쟁의 앞장에 서서있던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승엄히 인자했다.
 정령 중심리(당시)에서 탄생하신 김응우선생님께서 19세기 증언에 민중대로 이사하시였다.
 그의 선정님께서 영애는 사는 지구에 표를 보아주기로 하고 자기만한 안 당집(오늘날의 만경대초가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산당지기를 하면서 소작살이를 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총성의 200일전투를 폭풍처럼 내달리는 현안민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는 벽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 탄생 188돌을 맞이하고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위대한 내 조국의 지레찬 승들이 긍지로울수록 우리의 가슴속에는 반미투쟁의 첫 승리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진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을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강기사의 《서연》로 격침기념비일에 서있다.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사를 전하여주는 이 기념비일에 서고보니 후대에는 애국의 피가 끓어오른다.
 미제침략선 《서연》로 격침기념비, 정령 그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기적이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이 나라 현안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승리의 기둥, 북부의 기둥이 아닐까.
 기념비의 글줄을 읽어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불같은 애국심을 지니우고 반미투쟁의 앞장에 서서있던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승엄히 인자했다.
 정령 중심리(당시)에서 탄생하신 김응우선생님께서 19세기 증언에 민중대로 이사하시였다.
 그의 선정님께서 영애는 사는 지구에 표를 보아주기로 하고 자기만한 안 당집(오늘날의 만경대초가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산당지기를 하면서 소작살이를 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총성의 200일전투를 폭풍처럼 내달리는 현안민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는 벽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 탄생 188돌을 맞이하고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위대한 내 조국의 지레찬 승들이 긍지로울수록 우리의 가슴속에는 반미투쟁의 첫 승리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진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을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강기사의 《서연》로 격침기념비일에 서있다.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사를 전하여주는 이 기념비일에 서고보니 후대에는 애국의 피가 끓어오른다.
 미제침략선 《서연》로 격침기념비, 정령 그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기적이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이 나라 현안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승리의 기둥, 북부의 기둥이 아닐까.
 기념비의 글줄을 읽어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불같은 애국심을 지니우고 반미투쟁의 앞장에 서서있던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승엄히 인자했다.
 정령 중심리(당시)에서 탄생하신 김응우선생님께서 19세기 증언에 민중대로 이사하시였다.
 그의 선정님께서 영애는 사는 지구에 표를 보아주기로 하고 자기만한 안 당집(오늘날의 만경대초가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산당지기를 하면서 소작살이를 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총성의 200일전투를 폭풍처럼 내달리는 현안민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는 벽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 탄생 188돌을 맞이하고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위대한 내 조국의 지레찬 승들이 긍지로울수록 우리의 가슴속에는 반미투쟁의 첫 승리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진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을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강기사의 《서연》로 격침기념비일에 서있다.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사를 전하여주는 이 기념비일에 서고보니 후대에는 애국의 피가 끓어오른다.
 미제침략선 《서연》로 격침기념비, 정령 그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기적이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이 나라 현안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승리의 기둥, 북부의 기둥이 아닐까.
 기념비의 글줄을 읽어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불같은 애국심을 지니우고 반미투쟁의 앞장에 서서있던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모습이 승엄히 인자했다.
 정령 중심리(당시)에서 탄생하신 김응우선생님께서 19세기 증언에 민중대로 이사하시였다.
 그의 선정님께서 영애는 사는 지구에 표를 보아주기로 하고 자기만한 안 당집(오늘날의 만경대초가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산당지기를 하면서 소작살이를 하시였다.

위대성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속에 뛰두산전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최선시정적사업을 힘있게 진행해나가고자 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따라배우자 백두청춘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친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기록장을 펼치고 (5)

이제 여러 회문에 걸쳐 우리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벌인 영웅적투쟁의 계승과 고상한 품위를 그들의 전투기록장에 기록된 가지가지의 이야기에 담아 소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투기록장을 읽게 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한것은 오늘 백두청춘들이 이끈 나라 인민 누구나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본받아 충정의 200일전투장담마다에서 기적과 희생을 창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벌인 영웅적투쟁의 계승과 고상한 품위를 그들의 전투기록장에 기록된 가지가지의 이야기에 담아 소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투기록장을 읽게 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제 여러 회문에 걸쳐 우리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벌인 영웅적투쟁의 계승과 고상한 품위를 그들의 전투기록장에 기록된 가지가지의 이야기에 담아 소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투기록장을 읽게 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중정의 200일전투에서도 어머니 송리자가 되기 위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들의 앞에는 언제나 일꾼들이 서있다.

생산현장에서 우리와 단란한 합기업소의 한 담당공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혁명의 전구 백두산기슭에서 붉은기를 추켜들고 대오를 이끌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고기를 떠올려주세요. 그들의 고기를 잊으십시오.」

그때면 그는 발걸음의 10여년세월 언제나 가슴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의 사진을 품고 있었다는, 그 나날 무려 250여명의 돌격대원들에 대한 입담보장을 썼다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정치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로동신문」에서 보면 서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런 삶이 바로 후대들과 조국애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우리 일꾼들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정치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만날 수 있다. 사심없이 당과 혁명앞에 충실한 그만이든 인성상과 자기가 대오의 기수가 되고 나 말고자 될 때 어떤 단란한 서편도 이겨내고 아무리 어렵고 막대한 과업도 능히 완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지휘관들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정치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만날 수 있다. 사심없이 당과 혁명앞에 충실한 그만이든 인성상과 자기가 대오의 기수가 되고 나 말고자 될 때 어떤 단란한 서편도 이겨내고 아무리 어렵고 막대한 과업도 능히 완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지휘관들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정치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만날 수 있다. 사심없이 당과 혁명앞에 충실한 그만이든 인성상과 자기가 대오의 기수가 되고 나 말고자 될 때 어떤 단란한 서편도 이겨내고 아무리 어렵고 막대한 과업도 능히 완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경축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경축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이 진행되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백두수령 중심의 당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써주시고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집일승용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게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장애를 차는 가운데 현지에서 8월 19일(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당군님께 영광을」, 서사시 「인민은 8월을 노래한다」 등의 풍물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가 16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유엔국경 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비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16일) 유엔국경 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비준은 유엔국경 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의 취지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제민용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 진행

국제민용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가 16일(1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당사국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항공안전과 운항안전, 운항효율성, 운항비용 절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협력과 협력을 통해 북아시아지역 항공운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참가자들

플스까대사관 성원들 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크리슈모르 세번 주조 플스까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관 성원들이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심장에 불을 다는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

당 중앙에 술 단 예 술 들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경축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이 진행되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백두수령 중심의 당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써주시고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집일승용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게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장애를 차는 가운데 현지에서 8월 19일(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당군님께 영광을」, 서사시 「인민은 8월을 노래한다」 등의 풍물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 진행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가 16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국제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이 결정되었다.

대사 임명은 외교부에서 발표했으며, 임명된 대사는 외교부에서 발표된 대로 임명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에 갔던 김일성사회의 주의를 당부

베네수엘라에 갔던 김일성사회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회담록이 발표되었다.

회담록에는 김일성사회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아제르바이잔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아제르바이잔에 갔던 철도성대표단이 귀국했다.

대표단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철도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을 도촉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을 도촉하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방문단은 조국방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방문단은 조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